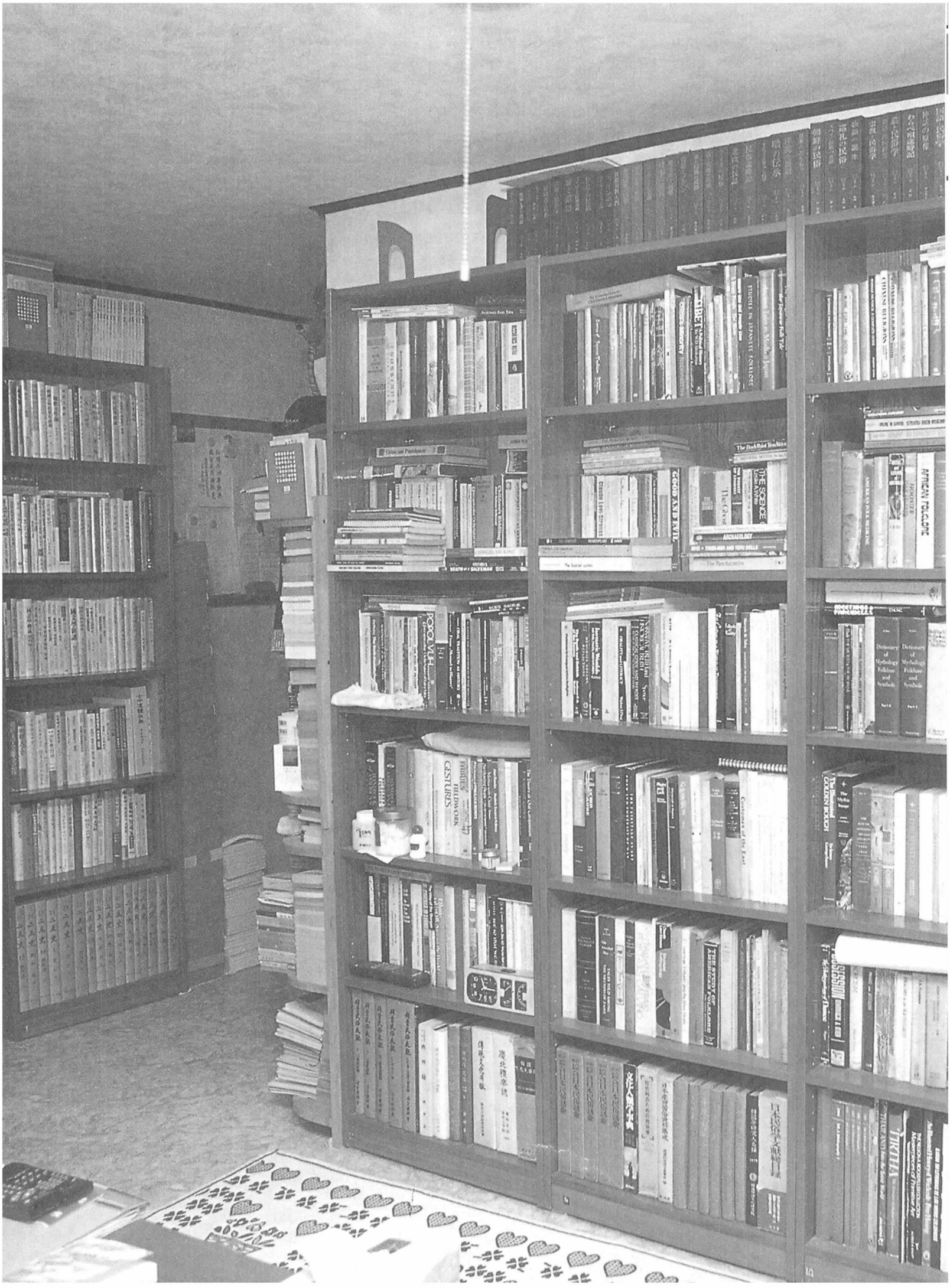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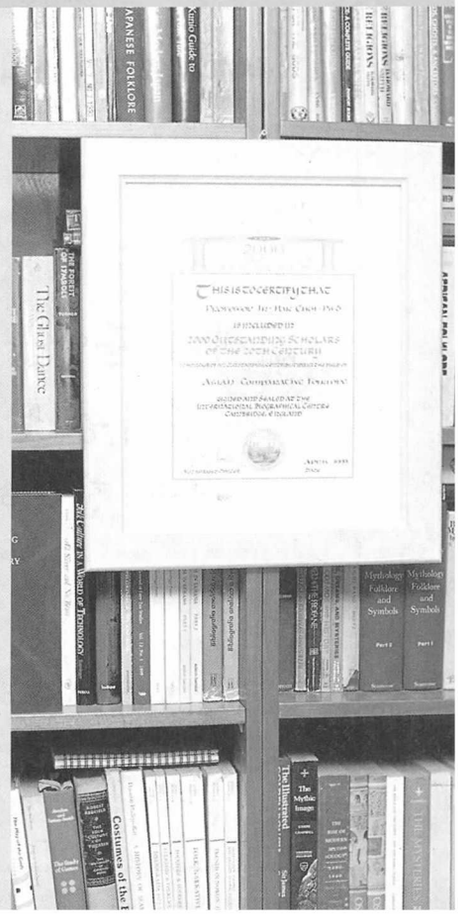

AFRICAN FOLKLORE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FIELDWORK GESTURES
THE SCIENCE
GOOD AND EVIL
ARCHAEOLOGY
The Golden Bough
TIKIMA

서가풍경

현장과 소통하는 민속학 자료실

인하대 국문과 최인학 명예교수의 서가

인하대 국문과 최인학 명예교수(68)는 우리 민속학계의 2세대 학자다. '비교민속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민속학 관련 저서 40여권을 저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정년퇴임 후 그는 은일하게 지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미뤄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한국민속학문헌총목록》을 펴내 1920~1995년까지 국내의 민속학 연구를 정리한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서가는 거실에서 작은방까지 이어지는 '소로'를 빽빽이 둘러싸고 있다. 민속학 문헌의 고전 〈FFC〉 시리즈와 설화 관련 원서가 길을 트고, 몇 걸음 나가면 《Mythology of All Races》《종교사전》《신화전설대계》가 늠름한 어깨를 드러낸다. 길은 곧바로 방에 닿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운집한 민속품들이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십이지상, 운남성 묘족의 탈, 인디언들의 혼례품, 인도의 쉬바신상 너머로 중국 한나라 때 빚은 토우가 앉아 있다. 중국 갔을 때 박물관의 한 연구원이 선물한 진품이다. 최교수는 북을 치며 노래하는 이 토우의 형상에서 판소리의 기원을 본다. 방안은 논문과 자료집으로 가득찼다. 영국 인물사전협회에서 세계 각 분야 학자 2천명에게 수여한 증서도 보인다. 이 증서를 받은 국내 학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최교수는 민속학의 핵심으로 비교 연구와 현장답사를 든다. 타민족의 민속과 비교하지 않고는 진정한 우리 것을 알 수 없고, 현장답사 없는 민속학은 거짓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교수의 서가는 세계와 현장을 향해 열린 또 하나의 '창'이다. — 강성민 기자